

## 遜志 洪在龜의 저술 연구

신요한\*

### < 目 次 >

I. 서론	IV. 위정척사와 천주교교리
II. 홍재구의 생애	인식에 관한 저술
III. 성리학적 기반 鞏固와 內修的 입장의 저술	1. 『衛正新書』
1. 『正俗新編』	2. 『息閑眞詮』
2. 『啓蒙要覽』	V. 결론

### < 국문 초록 >

본고는 遜志 洪在龜(1845~1898)의 저술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홍재구는 重菴 金平默(1819~1891)의 사위이자 제자로 김평묵 문인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명이다. 19세기 중반은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와 서양의 문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대외적 상황과 더불어 조선 사회는 세도정치와 三政의 문란 등으로 혼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華西 李恒老(1792~1868)의 위정척사 이론을 충실히 이어온 홍재구는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화서학파는 철저한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외세의 침략과 내부적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도 유교적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그들이 제시하였던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이 '內修外攘論'이었다. 또한 龍西 柳基一(1845~1904)은 「정속신편감찬발」에서 홍재구의 저술 『正俗新編』은 內修, 『息閑眞詮』은 外攘에 해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박사수료 / yohanshin@cnu.ac.kr

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홍재구의 저술을 內修와 外攘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한다. 『正俗新編』과 『正俗新編敢贊』, 『啓蒙要覽』과 『章山課藁』는 內修의 입장으로 『衛正新書』, 『息閑眞詮』은 外攘의 측면에서 지은 자료로 구분 지었다.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정속신편』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계몽요람』은 내외부적인 시대 인식의 대응으로 內修를 강조하며 五倫 및 仁義禮智信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저술이다.

충남 청양군 모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홍재구의 편저인 『위정신서』은 斥邪論音, 斥和疏를 비롯하여 위정척사와 관련된 글을 10종의 문집에서 뽑아 정리하였으며 淵齋 宋秉璿(1836~1905)의 서문이 실려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息閑眞詮』(古121-2)·『息閑眞詮』(古1194-1)은 천주교 교리에 대하여 24장으로 구분지어 조목별로 비판하며 적극적인 척사론을 펼쳐나갔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다.

홍재구와 함께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쳐간 유기일의 『용서고』 등, 홍재구와 관련된 인물들의 저술들을 비교 검토한다면 다양한 저술활동과 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손지 홍재구, 정속신편, 계몽요람, 위정신서, 식한진전, 정속신편감찬, 장산과고

## I. 서론

본고는 遜志 洪在龜(1845~1898)의 저술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홍재구의 저서들을 소개하여 화서학과 특히, 重菴 金平默(1819~1891) 문인들의 위정척사 활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이전보다 더 격심한 혼란과 동요를 겪었다. 道學에 대한 비판의 수준도 높아졌으며, 사상적 다원화가 일어났다. 이에 대하여 한말의 도학도 정밀하고 치열한 저항정신으로 무장되어 갔다.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 한말도학을 이끌어간 핵심인물이 華西 李恒老(1792~1868)이다. ‘衛正斥邪’의 도학정신을 시대적 이념으로 표방하고, 그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화서학파가 형성되고 위정척사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sup>1)</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서학파의 위정척사 활동은 천주교의 수용과 서양 문물의 유입, 서양의 무력침략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어났다. 성리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正學인 성리학 이외의 사상과 종교들을 異端과 邪學으로 규정하여 ‘衛正斥邪’를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항로 및 화서학파에서는 西勢東漸의 대외적 위기와 勢道政治·三政의 문란과 이로 인한 지방의 민란 등 대내적 위기에 대하여 內修外攘策<sup>2)</sup>·西學洋物禁斷策·戰守斥和策·斥倭第一策·義旅策<sup>3)</sup> 등의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홍재구는 위와 같은 영향을 받은 화서학파의 문인으로서 斥邪上疏運動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가 참가한 대표적 척사상소운동은 1876년 「丙子聯名上疏」와 1881년 「辛巳聯名上疏」이다.<sup>4)</sup> 이와 같은 척사상소운동은 이항로의 가르침을 받은 그에게 당연한 행동이었다.

위정척사 활동과 척사상소운동 등을 전개해 가며 화서학파의 사상을 이어나간 홍재구에 대한 연구는 그의 간찰을 소개하는 자료<sup>5)</sup>에서 시작했다. 다음으로 화서학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소개되었다<sup>6)</sup>. 하지만 홍재구

1) 금장태, 『華西學派의 철학과 시대의식』, 태학사, 2001, p.15.

2) 화서학파의 내수의양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宋堯厚, 「金平默의 『闢邪辨證記疑』에 나타난 斥邪思想에 대하여」, 『동국사학』 6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國學資料院, 1999 ; 이상익, 「衛正斥邪派의 外勢에 대한 인식과 대응」, 『泰東古典研究』 2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4 ; 「衛正斥邪派의 社會思想」, 『울곡사상연구』 19, 울곡학회, 2009 ; 李載錫, 「西勢東漸期 內修外攘策 研究」, 『統一問題와 國際關係』 4,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1990.

3)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신서원, 2001, p.150.

4)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신서원, 2001, pp.253-261.

5) 강원대학교박물관, 「華西學派 簡札選(I)」, 『博物館誌』 創刊號, 1994, pp.61-122.

6) 姜學錫, 『典故大方』, 漢陽書院, 1926 ; 장삼현, 『藥溪淵源錄』, 양평문화원, 1999 ;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 강대덕, 『화서 이항로의 시대인식』, 신서원, 2001 ; 장삼현,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양평문화원, 2002 ;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박민영, 『화서학파 인물들의 독립운동』, 역사공간, 2019.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홍재구가 남긴 詩文이나 저서가 없기 때문에 여겨진다.

2002년 프랑스 파리의 東洋言語文化學校(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에 소장되어 있던 홍재구의 『正俗新編』이 소개되었다.<sup>7)</sup> 이를 통해 홍재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속신편』을 소개했던 여진천은 『정속신편』의 구성과 홍재구의 서양인식, 『정속신편』에 대한 천주교회의 반응과 나아가 당시 황성에서 발생한 敎案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sup>8)</sup> 이후, 정경훈은 『정속신편』에 대한 안역과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한 연구<sup>9)</sup>를 진행 하였다. 안세현은 강원지역 천주교 유입에 대한 화서학과의 대응으로 홍재구의 『정속신편』을 제시하였다.<sup>10)</sup>

『정속신편』 하나의 자료로 김평묵 문인을 대표하는 인물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부족하다. 특히, 홍재구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고 홍재구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하여 『정속신편』에만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홍재구의 저술들을 통해 그의 사상, 위정척사 활동, 김평묵 문인과 省齋 柳重教(1832~1893) 문인의 心說論爭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홍재구의 생애와 『정속신편』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정속신편』과 함께 비교 검토해야 할 『正俗新編改贊』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啓蒙要覽』과 『章山課藁』, 홍재구가 편찬한 『衛正新書』와 천주교교리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판한 『息閑眞詮』을 소개하고자 한다.

龍西 柳基一(1845~1904)은 「정속신편감찬발」에서 홍재구의 저술 『정속

7) 여진천, 「『正俗新編』 解題」, 『교회사연구』 1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8) 여진천, 「19세기 화서학과 홍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 -『正俗新編』을 통하여-」, 『교회사연구』 2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9) 정경훈, 「遜志 洪在龜의 『正俗新編』 研究」, 『儒學研究』 2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2.

10) 안세현, 「강원지역 천주교의 유입과 유교사회의 대응」, 『고전과 해석』 18, 고전문학한문학회, 2015.

신편』은 內修, 『식한진전』은 外攘에 해당<sup>11)</sup>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도 홍재구의 저술을 內修와 外攘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한다. 『정속신편』과 『정속신편감찬』, 『계몽요람』과 『장산과고』는 內修의 입장으로 『위정신서』, 『식한진전』은 外攘의 측면에서 지은 자료로 구분 지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서지적 특성과 구성 위주로 정리하였다. 때문에 소개되는 각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미약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각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홍재구의 생애

홍재구는 1845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南陽 洪氏 집안으로 大提學을 지낸 麻川 洪逸童(?~1464)의 후손이며,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 거주했다.<sup>12)</sup> 字는 思伯, 號는 遜志다. 아버지는 洪昌燮이며, 어머니는 海平 黃氏이다. 1881년 辛巳斥邪運動 때 「關東儒疏」의 疏首가 되어 참형을 당한 勵志 洪在鶴(1848~1881)은 홍재구의 동생이다. 아버지 洪昌燮이 친우들과 함께 자제 교육을 위해 1856년 춘천으로 김평목을 초빙하였다. 이때 홍재구는 김평목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1858년 부친의 사후에도 김평목에게 수학하였으며, 김평목은 그의 효행과 好學을 인정하고 그를 사위로 삼았다. 이후 이항로와 화서학과 문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sup>13)</sup>

洪在龜 : 號가 遜志이다. 唐城人 麻川 洪逸童의 후손이다. 重菴 金平默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박학하고 經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文詞가 아름다웠다. 벼슬

11) 『龍西稿』, 「正俗新編敢贊跋」, 인용문의 내용은 IV장의 『息閑眞詮』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2) 『江原道誌』 권5, 「世居氏族」(春川), “南陽洪氏 大提學 逸童后 居西面新梅里”

13) 강원대학교박물관, 「華西學派 簡札選(I)」, 『博物館誌』 創刊號, 1994, p.67.

하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후학들을 권면하여 뛰어난 儒者和 선비들이 그 문하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辛巳(1881년)에 그의 아우 洪在鶴과 함께 항거하는 상소를 올렸다. 遺集이 있다.<sup>14)</sup>

용당공[洪昌燮]은 평해 황씨 학생 기락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장남 재구로 자는 사백이다. 경행과 명절이 지금 사림의 높은 발자취가 되었다.<sup>15)</sup>

『江原道誌』 「文學」편에 홍재구를 위와 같이 서술하였다. 학문과 문학으로 이름났음을 알 수 있으며, 문집이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70여 권의 문집을 남겨 집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 전쟁시 불타버렸다고 한다.<sup>16)</sup> 아래 인용문은 『重菴集』 24권에 수록된 「勵志堂洪君墓誌銘并序」이다. 김평묵은 홍재학의 묘지명에서 홍재구에 대하여 짧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經行 즉, 經學에 밝고 行實이 착하며, 명분과 절의가 있어 당시 士林들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김평묵은 말하고 있다.

홍재구는 위정척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먼저, 1876년 화서학과 유생 40인의 강화 반대 상소를 전개하였다. 홍재구는 「병자연명상소」의 疏首로 추대되었다. 소수의 추대 과정에서 유기일에서 毅菴 柳麟錫(1842~1915)으로, 다시 홍재구로 바뀌는 문제로 처음부터 異論이 많았다. 시기는 강화도조약 전후였으며, 김평묵과 유증교의 지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상소에서 개항반대론과 倭洋一體論을 주장했다.<sup>17)</sup>

다음 척사상소운동은 1881년 「신사연명상소」다. 이 상소는 홍재구가 직접 집필하였으며, 그의 동생 홍재학이 소수로 추대 되었다. 1880년 일본에 修信使로 파견된 金弘集(1842~1896)이 淸國公使館 參贊官 黃遵憲(1848~1905)의 『朝鮮策略』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전국적으로 위정척사론이 확산 되었다.

14) 『江原道誌』 권8, 「文學」(春川), “洪在龜 號遜志 唐城人摩川逸童后 受業于重菴金平默門 博學窮經 文詞精雅 無意進就 獎進後學 鴻儒碩士多出其門 辛巳 同其弟在鶴抗章 有遺集”

15) 『重菴集』 권47, 「勵志堂洪君墓誌銘并序」, “(상략)…龍塘公娶平海黃氏 學生基洛女生一男長在龜 字思伯 經行名節 今爲士林高蹈…(하략)”

16) 강원대학교 박물관, 「華西學派 簡札選(I)」, 『博物館誌』 創刊號, 1994, p.68.

17)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7, 「근대」,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3, pp.89-90.

이 때 중암은 경기·관동 유생들에게 伏閣上疏 진개하도록 하였다. 여러 달에 걸친 복합상소에도 儒疏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홍재학은 병조판서 閔台鎬(1834~1884)에게 편지를 보내 결국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重臣들을 비롯해 국왕까지 정면 비판한 상소로 홍재학은 의금부에 잡혀가 고문을 받고 결국 처형당했다. 이 상소에 尾附疏를 썼던 중암은 智島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김평묵의 유배로 중심을 잃은 이들은 다시 한번 自請을 택하게 되었다. 이후 1896년 2월 고종의 俄館播遷이 일어나자 홍재구는 복합상소와 환궁 운동을 계획했으나 실패하고 1898년 세상을 떠났다.<sup>18)</sup>

### Ⅲ. 성리학적 기반 공고와 내수적 입장의 저술

홍재구의 문집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타 없어졌다. 그러나 다행히 1981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4,400여점의 화서학과 관련 고문서가 기증되어 자료의 보존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강원대학교 박물관은 위 자료 가운데 홍재구 간찰 63점을 탈초하고 내용을 소개하였다.<sup>19)</sup> 홍재구와 관련된 가장 많은 자료였다. 그 이후 여진천의 노력으로 『정속신편』이 소개되었고, 이것은 成冊 형태 중 처음 알려진 홍재구의 저술이다.

화서학과는 철저한 유교적 세계계관을 가지고 있어 외세의 침략과 내부적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도 유교적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그들이 제시하였던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이 '內修外攘'<sup>20)</sup>이었다. 이러한 영향은 홍재구의 저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홍재구의 저술을 內修와 外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자한다. 먼저 『정속신편』과 『계몽요람』

18) 여진천, 「19세기 화서학과 홍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 -《正俗新編》을 통하여-」, 『교회사연구』 2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pp.35-36.

19) 강원대학교박물관, 「華西學派 簡札選(Ⅰ)」, 『博物館誌』 創刊號, 1994, pp.61-122 : 『(滿雲 柳然益先生 寄贈) 春川 高興柳氏 家傳 資料』, 2013.

20)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신서원, 2001, p.159.

은 內修의 입장으로 『위정신서』, 『식한진전』은 外攘의 측면에서 저술한 자료로 구분 지었다.

먼저 성리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며 내수적 입장에서 저술한 자료인 『정속신편』과 『계몽요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正俗新編』

### 1) 서지적 특성

『정속신편』은 앞선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프랑스 파리의 동양언어문화학교에 소장(청구기호 : COR-I.39)되어 있다. 1982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 자료를 조사·영인하여 마이크로 필름(청구기호 : M古4-1-39)으로 제작했으며, 한국고전적종합목록<sup>21)</sup>을 통해 원문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료의 表題 및 卷首題는 모두 『정속신편』으로 동일하며, 형태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서명사항 : 表題 및 卷首題 『正俗新編』
- ② 형태사항 : 1冊, 14行24字, 烏絲欄, 28cm×17cm<sup>22)</sup>

『정속신편』은 1892년 7월 21일 풍수원 본당 르 메르(Le Merre, 한국명 李類斯, 1858~1928) 신부가 황성의 홍재구가 쓴 『정속신편』의 필사본을 구해 교구장 뮈텔(Mutel, 한국명 閔德孝, 1854~1933) 주교에게 보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내용 중에 자신을 비롯한 선교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뮈텔 주교는 이 문제를 주한 프랑스 공사관과 공조하여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시 주한 프랑스

21)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URL은 다음과 같다. <https://www.nl.go.kr/korcis/> [검색일 : 2019.11.9.]

22) 여진천, 「『正俗新編』 解題」, 『교회사연구』 1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p.204.

공사 겸 총영사였던 프랑댕(H. Frandin, 1852~1926)에게 『정속신편』을 보냈다. 그 후 이 자료는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4)가 소장하다가 파라의 동양어학교(현재의 동양언어문화학교)에 기증하여 지금까지 소장되어 있다.<sup>23)</sup>

## 2) 구성과 내용

『정속신편』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정속신편』 목차와 구성

장	제목	구성	비고
1	總論		第一에 해당
2	明倫 第二	①明父子之親 ②明君臣之義 ③夫婦之別 ④明長幼之序 ⑤明師生朋友之交	
3	治身 第三	①明心術之要 ②言福善禍淫之常 ③明威儀言論行事之宜 ④明衣服之制 ⑤明飲食之節	
4	正家 第四	①言正倫理篤恩義并行不悖之道 ②言勤儉之道 ③言崇儉革奢 絕冗費之道 ④言用財之宜 ⑤言祭祀之禮 ⑥言治喪之禮 ⑦言冠婚之禮 ⑧言接賓之道 ⑨言謹疾之道 ⑩言左道之禁 ⑪言祈禱之宜 ⑫言貴義賤利之道兼言謀生之方	원문표기 第三
5	居鄉 第五	①言重民庶之道 ②言勸善規過 ③言正名分篤恩義之道 ④言患難相恤之道 ⑤言畏敬法令分自修之道	
6	處世 第六	①言出處榮辱之大分 ②言元清之當攘 ③言倭洋之當攘 ④言崇節明道是免禍之道	

체제상으로 보았을 때 총론은 第一에 해당된다. 그리고 원문에는 '正家 第三'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이는 앞뒤 순서를 보았을 때 '第四'의 誤記임이 분명하다.

『정속신편』의 出處 내용 중 '倭洋之當攘' 등을 통해 홍재구의 위정척사 사상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경험한 천주교의 빠른

23) 여진천, 「『正俗新編』 解題」, 『교회사연구』 1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p.204.

전과와 서양기술 등의 西勢東漸을 통해 철저한 척사론 입장에서 外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양의 조건으로 明倫, 治身, 正家, 居鄉 등 성리학의 內的修養을 강조한다. 『정속신편』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小學』이나 『大學』의 학문방법과 근사하지만, 마지막 편의 處世를 제외하면 正家와 居鄉에 머무르고 있다. 이 책이 經世的인 목적보다 鄉里의 주변을 단속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며, 김평목과 유중교·유인석 계열의 심설논쟁으로 분화된 학파의 내적 원인도 있다.<sup>24)</sup>

### 3) 『正俗新編敢贊』과 비교 검토

『정속신편』과 함께 연구해 보아야 할 『정속신편감찬』<sup>25)</sup>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정속신편감찬』은 유기일이 저술한 것으로 홍재구의 『정속신편』 각 章마다 條를 나누어 그 뒤에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저술은 뒤에 서술하게 될 『식한진전』 또한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현재 『정속신편감찬』은 3종이 확인 된다. 1종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1종은 숭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sup>26)</sup> 다른 1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세 자료 모두 필사본으로 숭실대학교 소장본은 『정속신편감찬』 단독으로 필사되었다.<sup>27)</sup>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유기일의 문집인 『용서고』 가운데 편성되어 있다. 한국학중앙

24) 정경훈, 「遜志 洪在龜의 『正俗新編』 연구」, 『儒學研究』 2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2.

25) 안세현(2015)의 논문에서 숭실대학교 소장 『정속신편감찬』을 언급했는데, 본고에서 살핀 자료는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26) 숭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청구기호 : A170 유1906정 v.1-2)는 같은 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자료의 복사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종의 자료가 현재 전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본고에서 언급하는 숭실대학교 소장본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을 지칭한다.

27)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한국학 자료 해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0, pp.250-251.

연구원에는 24책의 『용서고』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21~22책 부분이 『정속신편감찬』에 해당 된다.

숭실대학교 소장본 첫 장에 『용서고』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 또한 『용서고』를 편찬하는 과정의 원고본이나 『용서고』 가운데 『정속신편감찬』 부분만 필사하며 편집한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속신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프랑스 파리 동양언어 문화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가 유일하여, 그 내용을 비교할 대본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속신편감찬』을 토대로 내용 및 글자의 出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진천은 『정속신편』의 저자를 홍재구로 파악하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sup>28)</sup> 그 논문을 통해 저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본고에서는 『정속신편감찬』의 序文과 跋文을 통하여 홍재구가 저자인 추가적인 근거를 덧붙이고자 한다.

내가 을미년 11월(復月) 중 손지가 지은 『정속신편』 1책을 얻어 읽고 음미했다.<sup>29)</sup>

정속신편 한편을 盥讀하니 탄식이 나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아! 참으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책이다. 손지 형이 홀로 고민했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식한진전』과 더불어 널리 전해야 함이 마땅하다.<sup>30)</sup>

위 두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용서고』에 수록된 『정속신편감찬』의 서문과 발문의 일부분이다. 유기일의 서문에 정확히 홍재구가 지은 『정속신편』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 발문에서도 역시 홍재구의 저술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장이 보인다.

28) 여진천, 「19세기 화서학과 홍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 -《正俗新編》을 통하여-」, 『교회사구』 2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pp.33-34.

29) 『龍西稿』, 「正俗新編敢贊序」, “余語乙未復月中 得遜志所著正俗新編一冊 讀而味之…… (하략)”

30) 『龍西稿』, 「正俗新編敢贊跋」, “正俗新編盥讀一編 不覺喟然 噫 眞此世所不可無之書也 遜志兄獨苦之心 其誰能覺 當與息閑眞詮同其廣傳也 宜哉…… (하략)”

때문에 젊은 친구 이규용, 나상협, 장명근이 며칠 내에 옮겨 베껴내었다.<sup>31)</sup>

이규용, 나상협, 장명근은 유기일의 제자들이다. 세명의 제자들이 『정속신편감찬』을 필사했으며, 아래 刊寫記에서 보이는 것처럼 華陽(書畵)에서 간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기일이 지은 서문과 발문을 지은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 『용서고』 가운데 이 책의 마지막에 유일한 간사기가 남아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문 : 永曆五己亥(1899년)六月庚寅儒州柳基一書
- ② 발문 : 永曆五乙未(1895년)復月(11월)甲子儒州柳基一
- ③ 간사기 : 己亥(1899년)至月(11월)初九日 膽呈于華陽<sup>32)</sup>

『정속신편감찬』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속신편』의 저자가 홍재구임을 다시 확인 하였다. 특히 『정속신편감찬』은 현재까지 프랑스에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정속신편』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2. 『啓蒙要覽』

### 1) 서지적 특성

『계몽요람』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책의 필사본이다.

책의 表題는 『擊蒙要訣』, 卷首題는 『啓蒙要覽』이다. 序文 앞에 『章山課藁』라는 서명이 있다. 匡郭과 烏絲欄 없이 10行21字로 필사했다. 『계몽요람』의

31) 『龍西稿』, 「正俗新編敢贊跋」, “(상략) ……因屬少友李景三圭容 羅士寅相協 張性謂命根 諸人 不日膽出…… (하략)”

32) 장삼현,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양평문화원, 2002, p.78, “○ 華陽精畵 : 포천구가산면 금현리에 華西·重菴의 제자인 龍溪 柳基一(1845~1904)이 개설하여 후학을 양성하던 書塾이다.” 참조.

서지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명사항 : 表題는 『擊蒙要訣』, 기타서명 『章山課藁』, 卷首題는 『啓蒙要覽』
- ② 형태사항 : 1冊, 10行21字, 28.2×19.5cm

서문은 崇禎五乙酉(1885년)立秋前一日癸巳에 江陵 蓬平 山中에서 홍재구가 지었다.

## 2) 구성과 내용

『계몽요람』의 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장을 통해서 『정속신편』에서 주장하는 內修의 방법과 유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계몽요람』 목차

장	제목	장	제목
1	正趨向句 第一	13	理情性 第十三
2	尊攘 第二	14	致用 第十四
3	擇師友 第三	15	廢科舉 第十五
4	窮理 第四	16	勵廉恥 第十六
5	躬行 第五	17	崇節義 第十七
6	立本 第六	18	謹出處 第十八
7	主敬 第七	19	修辭 第十九
8	謹禮 第八	20	戒鄉原楊朱 第二十
9	矯氣質 第九	21	勤儉 第二十一
10	自強 第十	22	朋黨 第二十二
11	致一 第十一	23	居鄉 第二十三
12	審先後 第十二	24	理氣 第二十四

성인이 사랑함에 인륜으로 가르치시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고 남편과 아내 간에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간에는 차례가 있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다 하셨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진실로 이 윤리가 있기 때문이니 만약 윤리가 어둡다면 어찌 금수와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을 가르칠 때 단지 오류의 도리로 하였던 것이다.<sup>33)</sup>

인생의 큰 윤리가 다섯 가지 있는데 부자, 군신, 부부, 형제, 친구의 사귀이요. 인의예지신 다섯 가지는 천명에 근원하고 인심에 갖추어져서 다섯 가지의 사이에서 행동하는 것이다.<sup>34)</sup>

위 인용문은 『정속신편』 「총론」에서 오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래의 『계몽요람』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류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 두 책의 시작에서 동일하게 유가의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五倫과 仁義禮智信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 3) 『계몽요람』과 『章山課藁』 관련성 검토

『계몽요람』과 『장산과고』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이유는 고려대 소장본에 표기된 『장산과고』라는 기타서명과의 관계 때문이다.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사이트<sup>35)</sup>에서 『장산과고』를 검색하면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장산과고』가 검색결과로 나온다. 이 자료를 고려대 소장본과의 비교했을 때 다른 책임을 알 수 있다.

『장산과고』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책의 筆寫本 자료다.

표제 및 권수제 모두 『章山課藁』이며, 匡郭이나 烏絲欄 없이 필사한 자료다.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지만,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상세정보에 『大清光緒十六年歲庚寅(1890)時憲書』의 이면에 필사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1890년 이후 필사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33) 『正俗新編』, 「總論」, “聖人有愛之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人之所以異於禽獸者 實在於此 如或昧此 與禽獸何別 所以聖人教人 只在乎五倫五常” (정경훈(2012) 재인용).

34) 『啓蒙要覽』, 「啓蒙要覽序」, “生人之大倫 有五 曰父子也 君臣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仁義禮智信五者 原於天命 具於人心而行乎五者之間者也 ……(하략).”

35) <http://emuseum.go.kr/main> [검색일 : 2019.11.9.] “상세정보 : 홍재학 등이 함께 올린 「江原道儒生洪在鶴等斥洋疏」와 홍재구가 지은 「衛正新書序」 등이 필사되어 있음.”

- ① 서명사항 : 表題, 卷首題 모두 『章山課藁』
- ② 형태사항 : 1冊(16장), 무면, 무계, 12行34字, 28.0×15.5cm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은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저자나 필사자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江原道儒生洪在鶴等斥洋疏」와 「위정신서서」를 통해 홍재구 또는 홍재구와 관련된 인물의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위정신서』에서 보이지 않았던 홍재구 본인의 서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정신서』의 편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산과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 3〉 『장산과고』 목차

장	작품명	비고
1	江原道儒生洪在鶴等斥洋疏	
2	衛正新書序	홍재구 저
3	清倭洋三國與朝鮮和親時清將吳大徵在朝鮮朝避世之人而作	
4	辨黨論	
5	辨黨論下	
6	光緒壬辰日本檄書再來故我國答送	
7	長城奇錦沙自警說	
8	性齋先生文集序	
9	東道儒會通文	
10	南儒伏 閣疏章	
11	論語鄉黨篇孔子衣服之制曰非唯裘必殺之	
12	慶州舊都序文	
13	江陵集慶殿事蹟	

다음으로 『장산과고』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章山’은 홍재구를 비롯한 南陽 洪氏들이 거주했던 곳의 한 지명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지역에 ‘장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世居氏族】(春川) 南陽洪氏 : 大提學 洪逸童의 후손이다. 西面 新梅里에 거주한다.<sup>36)</sup>

『강원도지』 권5 「세거씨족」 편에 따르면 대제학을 지낸 홍일동의 후손들(홍재구의 집안)이 춘천의 서면 신매리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매리는 본래 춘천군 西上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외매하리, 사리, 반송하리, 신포리의 각 일부와 오매상리, 보가대리를 병합하여 신포와 오매의 이름을 따서 신매리라 하고 1934년 4월 1일에 서면에 편입되었다.<sup>37)</sup>

또 ‘章山’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글이 省齋의 간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대의 막내가 근간 한 번 와서 보고는 아버지 모시는데 평안하다 합니다. 다시 章山으로 가서 洪聞叔(홍재학)에 곡하고 돌아왔습니다. 내년 봄에 장차 바닷가에 계신 스승을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sup>38)</sup>

유중교가 구증식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이다. 홍문숙은 홍재구의 아우 홍재학을 말하며, 그의 자가 문숙이다. 홍재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81년 「신사연명상소」의 소수를 맡았으며, 상소로 인해 그해 閏7월 20일에 처형 되었다. 때문에 홍재학에게 곡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다.

章山 洪生 上候疏 省禮謹封<sup>39)</sup>

위의 인용한 내용은 辛未(1871년) 正月 六일에 홍재구가 유중교에게 보낸 간찰의 皮封 내용이다. 장산의 홍재구가 성재에게 올린 간찰의 피봉에 ‘장산 홍생’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상의 춘천과 관련된 지리지와 홍재구와

36) 『江原道誌』 권5, 「世居氏族」(春川), “南陽洪氏 大提學 逸童后 居西面新梅里”

37) 『春州誌』, 春川文化院, 1984, p.263.

38) 『省齋集』 권20, 往復雜稿, 「答具士正中植○辛巳十月」, “賢季間一來見 道親側之安 轉進章山 哭洪聞叔而歸 謂於明春 將造候海上.”

39) 강원대학교박물관, 「華西學派 簡札選(I)」, 『博物館誌』 創刊號, 1994, p.74.

관련한 인물들의 간찰에 나타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산이라는 명칭은 홍재구 또는 홍재구의 일가 등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 IV. 위정척사와 천주교교리 인식에 관한 저술

이번 장에서는 천주교교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내수의양론'에서 '외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衛正新書』

###### 1) 서지적 특성

『위정신서』는 충청남도 청양군 모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4권 2책의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모덕사 소장 고문헌자료를 조사하고 그 원문 DB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서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表題, 卷首題 모두 『衛正新書』로 동일하다. 匡郭과 烏絲欄이 있는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27.5×19.0cm로 『위정신서』의 서명과 형태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명사항 : 表題, 卷首題 모두 『衛正新書』
- ② 형태사항 : 4卷2冊, 四周單邊, 烏絲欄, 10行字數不定,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27.5×19.0cm

서문은 淵齋 宋秉璿(1836~1905)이 1883년에 지었다. 서문은 『연재집』에 수록되어 있다. 『위정신서』에 실려 있지 않지만, 뒤에 소개할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 『章山課藁』에 1881년에 쓴 홍재구의 서문이 있다. 발문은 중앙이 瀛海累人이라는 표현을 쓴 점과 시기를 보았을 때 智島 流配 당시 지은 것으로 보인다.

- ① 宋秉璿 序文：崇禎五回昭陽協洽(癸未, 1883년)暮春者(3월)德殷宋秉璿序
- ② 洪在龜 序文：崇禎紀元之五辛巳(1881년)中夏(5월)唐城洪在龜序
- ③ 金平默 跋文：崇禎殉社五甲申(1884년)瀛海累人金平默跋

이상의 서문과 발문의 작성 시기를 보았을 때 『위정신서』는 1881년 이전에 편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날 이중구(承旭)가 이 책을 소매에 넣어 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 책은 홍재구가 편찬한 것으로 빠진 것을 도와주기를 요청하니 그 뜻이 괴롭고 또 절실하였다. 그러나 조야의 문헌에서 들어갈 것과 들어가지 말 것이 많아서 내가 장차 수집하고자 한 것으로 빠진 것을 보충하여 홍군의 뜻을 이루었다.<sup>40)</sup>

위 글은 연재의 서문 중 일부 내용이다. 홍재구가 편찬한 『위정신서』를 그의 친구 李承旭이 연재를 찾아가 글의 增刪을 부탁하였다. 연재는 뺄 것과 넣을 것을 정리한 다음 다시 홍재구에게 보낸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홍재구가 편찬한 것과 송병선이 책의 구성을 도와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위정신서』의 구성과 내용

『위정신서』는 1·2권이 1책, 3·4권이 2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재구가 위적척사와 관련된 글들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다. 각 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辛酉斥邪繪音(1801년)이라 불리는 「純祖大王斥邪頒敎文」과 헌종이 1839년 내린 斥邪繪音<sup>41)</sup>을 시작으로 巍巖 李東(1677~1726)·剛齋 宋穉圭

40) 『衛正新書』, 「衛正新書序」, “(상략)…… 一日 李君重九袖致此書 以示余曰 此南陽洪思伯所編 而要以寓扶闕之義 其意苦且切矣 然朝野文獻 可入而不入者多 故吾將欲蒐輯 補其闕漏 以成洪君之志 ……(하략).”

41) 憲宗이 1839년 천주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백성들에게 내린 교서로 『論中外大小民人等斥邪繪音』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1759~1838) · 梅山 洪直弼(1776~1852) · 이항로의 문집에서 위정척사와 관련된 글들을 뽑아 엮었다. 권2는 蘆沙 奇正鎭(1798~1879) · 立齋 宋近洙(1818~1903) · 김평묵 문집의 글을 뽑았다. 권3에서는 송병선 · 유중교의 글을, 권4는 勉庵 崔益鉉의 문집과 유생들의 척사와 관련한 儒疏 그리고 補遺로 중암의 글을 추가하였다.

권1~4의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위정신서』 목차

1책			2책				
권	문집	제목	권	문집	제목		
卷 1		衛正新書序	卷 3	宋淵齋集	上叔父書		
		衛正新書目錄			又		
		純祖大王斥邪頒教文			又		
		憲宗大王斥邪論音			辭召命兼陳所懷疏		
	李巍巖集	天地辨後說			辛巳封事一條		
	宋剛齋集	答徐德哉者輔書			隨聞雜識		
	洪梅山集	與朴穉升宗塾書			答金重庵平默書		
		答金穉章平默書			答金季用駿赫書		
	李華西集	東西南北說			卷 4	柳省齋集	與金元直性柱書
		與柳公始(日+甲)洛文墨書					答李重九承旭書
		孔雀問答		儒疏		爵村寺平疏節畧	
		鬪邪錄辨				崔勉菴集	洋倭入境時斥和疏
		雜錄				金重庵集	京畿江原兩道儒生洪在龜等論倭洋書迹仍請絕和疏
		南八灘萬物眞源後識					慶尙道儒生李晚孫等斥和疏
丙寅斥和疏節畧	補遺	江原道儒生洪在鶴等斥和疏					
又		答朴弼瑞鼎鉉書					
卷 2	奇蘆沙集	丙寅斥和疏節畧	補遺	金重庵集	寄春善		
	宋立齋集	辭左議政疏節畧			跋		
	金重庵集	鬪邪辨證記疑			與嶠南疏廳		
		禦洋論					
		丙寅回答私議					

## 2. 『息閑眞詮』

### 1) 서지적 특성

『식한진전』은 현재 2종이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1종은 乾·坤 2책 완질본(古121-2)이며, 1종은 1책 零本(古1194-1)이다.

먼저 완질본 『息閑眞詮』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책의 겉표지 서명인 表題, 본문이 시작하는 첫 장의 서명 卷首題, 版心の 위아래 魚尾와 匡郭의 위아래 邊 사이 공간에 있는 花口<sup>42)</sup>의 서명이 모두 『息閑眞詮』으로 동일하다. 책은 2권 2책으로 되어있으며, 匡郭과 烏絲欄을 그어 필사하였다. 책의 크기는 18.5×14.5cm 이다. 완질본 『식한진전』의 서명과 형태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서명사항 : 表題, 卷首題, 花口 모두 『息閑眞詮』
- ② 형태사항 : 2卷2冊, 四周單邊, 烏絲欄, 10行字數不定,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18.5×14.5cm

다음으로 영본 『息閑眞詮』을 살펴보면, 표제는 『息閑眞詮』, 권수제는 『息閑眞詮』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자료는 1권 1책만 남아 있는 영본인데, 완질본 『식한진전』의 1권 1책의 구성과 동일하다. 책의 크기는 위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사항을 인용하였다. 영본 『식한진전』의 서명과 형태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서명사항 : 表題는 『息閑眞詮』, 卷首題는 『息閑眞詮』
- ② 형태사항 : 1卷1冊(零本), 10行字數不定, 註雙行, 31.0×19.0cm

완질본과 영본의 가장 큰 차이는 권수제에 있다. 한글로 읽을 때는 동일하지만 한자로 표기하면 두 자료의 대표서명은 『息閑眞詮』과 『息閑眞詮』으

42) 千惠鳳, 『韓國 書誌學』, 民音社, 1997, p.557.

로 달라진다. 통용되는 글자를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고서를 정리할 때 권수제를 우선으로 채택하여 서명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영본 『식한진전』의 대표서명은 『息閑眞銓』이 된다.

영본 『식한진전』은 광곽과 오사란 없이 필사하였고, 책의 크기가 다른 만큼 쪽수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권 1책의 전체 구성에 있어서는 두 자료 모두 동일하다.

두 자료의 공통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필사본과 같이 자료의 내용만으로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할 수 없다. 서문은 두 자료의 시작부분에 있기 때문에 永曆紀元後五周之甲午(1894년)二月庚辰에 無名자가 서문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 『식한진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유기일의 『용서고』에 실려 있다. 이번에 인용하는 『용서고』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이다. 연세대학교 소장본은 모두 25책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24권 雜著에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直詮甲午十二月七日」라는 글이 있다. 제목을 통해 홍재구가 癸巳(1893년) 여름에 『식한진전』을 저술했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확인 할 수 있다.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直詮甲午十二月七日」은 글 제목대로 갑오(1894년) 12월 유기일이 계사(1893년) 2월에 홍재구가 지은 『식한진전』을 읽고 본인의 의견을 서술한 것이다. 이글의 체계와 앞서 언급한 『정속신편감찬』의 체계와 동일하다. 즉, 앞에는 홍재구의 글이 놓여 있고, 條마다 홍재구의 글에 대한 유기일의 의견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속신편』과 『정속신편감찬』은 두 종류의 책이 따로 전해지고 있지만, 『식한진전』은 완질본과 낙질본 모두 홍재구와 유기일의 글이 함께 있는 자료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 2) 『식한진전』의 구성과 내용

『식한진전』은 모두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乾책에 8장, 坤책에 16장의 글이 있다. 낙질본 『식한진전』 역시 완질본 乾책과 같이 8장의 글이

실려 있다. 실려 있는 글 또한 동일하다. 『식한진전』의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식한진전』 목차

乾		坤	
장	제목	장	제목
1	擬諭洋人論中國聖道之所以貴 第一	9	辨三德 第九
2	擬諭洋人辨弗祀辨堂獄辨有所爲無所爲 第二	10	辨四樞 第十
3	辨上帝天主之不同 第三	11	辨八端 第十一
4	辨原祖 第四	12	辨七克 第十二
5	辨有形無靈 第五	13	辨十四哀矜 第十二(十三)
6	辨天降石版十誡 第六	14	辨七蹟救靈 第十四
7	性善說 第七	15	辨教皇神父主教 第十五
8	論男女無別之禍 第八	16	辨原罪 第十六
		17	辨認主報主 第十七
		18	辨永苦永樂 第十八
		19	論天道之福善禍淫 第十八(十九)
		20	辨三仇 第十九(二十)
		21	辨降生救贖三位一箇 第二十(二十一)
		22	聖道說 第二十一(二十二)
		23	衣冠說 第二十二(二十三)
		24	洋物辨 第二十三(二十四)

목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坤책에서는 장 표시 중복으로 인한 誤記가 보인다.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直詮甲午十二月七日」과 대조하여 괄호 속의 번호로 수정할 수 있다.

홍재구의 『식한진전』은 천주교 교리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비판하는 斥邪書라고 할 수 있다.

한가한 날 저들의 말이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이 심함을 취하여 대략 논변하고 밝힌 것을 더하여 부르기를 『식한진전』이라 하고 동지들과 더불어 익히고자 한다.<sup>43)</sup>

위의 내용은 「식한진전」 서문의 일부분이다. 甲午(1894년) 2월 無名子가 지었다. '息閑'이라 제목을 쓰게 된 이유가 보이는 부분이며 또한 '無名子'는 홍재구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속신편 한편을 盪讀하니 탄식이 나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아! 참으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책이다. 손지 형이 홀로 고민했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식한진전』과 더불어 널리 전해야 함이 마땅하다. 修攘(內修外攘)의 차례로 말한다면 저 책(『식한진전』)은 외양일 것이고, 이 책(『정속신편』)은 내수라 할 것이니, 선후를 아는 자는 진실로 輕重, 內外와 先後, 本末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젊은 친구 이규용, 나상협, 장명근이 며칠 내에 옮겨 베껴내었다. 그리고 감히 그 끝에 세상 군자의 고민으로 지었다.<sup>44)</sup>

위 인용문은 유기일의 「정속신편감찬발」의 내용이다. 『정속신편』은 內修, 『식한진전』은 外攘으로 보고 있다. 이항로는 서구열강과 통상할 경우 이들에 의한 경제적 폐해도 경고하면서 서양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양사람들과 교역할 필요도 없게 되고 따라서 그들이 조선에 오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內修外攘論은 위정척사론의 기본 골자가 된다.<sup>45)</sup> 이와 같은 이항로의 위정척사론은 그의 문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그 이론을 실천하기 위해 책으로 남겼음을 알 수 있다. 『계몽요람』 또한 내용 내수외양론에 맞춰 분석해 본다면 김평묵 문인들의 이항로의 위정척사론의 계승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3) 『息閑眞詮』, 「息閑眞詮序」, (“상략)…… 暇日取彼說之 惑人甚者 畧加辨明號曰 息閑眞詮 欲與同志者 講焉 ……(하략).”

44) 『龍西稿』, 「正俗新編敢贊跋」, “正俗新編盪讀一編 不覺喟然 噫 眞此世所不可無之書也 遜志兄獨苦之心 其誰能覺 當與息閑眞詮同其廣傳也 宜哉 如以修攘之序言之 則彼猶外攘 而此爲內修 所知先後者 固不得重內輕外 而亦不應先末後本也歟 因屬少友李景三圭容 羅士寅相協 張性謂命根 諸人 不日騰出 敢題其尾以諗于并世之君子 永曆五乙未復月甲子儒州柳基一.”

45)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7, 「근대」,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3, p.87.

## V. 결 론

홍재구는 이항로와 김평묵의 학통을 계승한 위정척사론자이며, 유기일과 더불어 김평묵의 대표적 문인이다. 그러나 그의 문집이나 저술이 발견되지 않아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홍재구의 저술 및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화서학과에서 위정척사를 위해 제시했던 기본적인 대응책이었던 內修外攘을 바탕으로 홍재구의 저술들을 구분하였다. '內修'의 측면에서 『정속신편』, 『계몽요람』을 '外攘'을 바탕으로 저술한 『위정신서』와 『식한진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수'에 해당하는 자료인 『정속신편』은 홍재구가 위정척사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그리고 西勢東漸의 상황에서 外攘을 주장하였으며, 외양의 조건으로 성리학적 기반의 내적수양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계몽요람』은 새롭게 발견된 홍재구의 저술로, 이 자료 또한 『정속신편』에서 서술한 내용들과 비슷하게 유가의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양'의 측면에서 살펴본 『위정신서』는 위정척사와 관련된 글을 10종의 문집에서 뽑아 정리한 자료이며, 『식한진전』을 통해 홍재구는 천주교 교리에 대하여 조목별로 비판하는 적극적인 척사론을 펼쳐나갔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 살펴본 홍재구의 저술과 관련이 깊은 『정속신편감찬』과 『장산과고』 등의 자료도 함께 비교 검토해 보았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여 소개한 자료들은 특히 內修外攘을 기저로 하는 화서학파의 위정척사론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본고는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각각의 저술에 대한 내용 분석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각 자료의 내용적 분석을 통해 화서학과 및 김평묵 문인들의 척사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속신편』, 『정속신편감찬』, 『식한진전』 등의 자료를 볼 때, 홍재구와 유기일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마지막

으로 유기일의 흠어져 있는 문집인 『용서고』와 함께 연구할 필요성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參考 文獻〉

1. 자료

- 강원대학교박물관, 『華西學派 簡札選(I)』, 『博物館誌』 創刊號, 1994.
- 강원대학교박물관, 『(滿雲 柳然益先生 寄贈) 春川 高興柳氏 家傳 資料』, 2013.
-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7 「근대」, 2013.
- 江原道誌刊行所, 『江原道誌』, 江原道誌刊行所, 1941.
- 姜敷錫, 『典故大方』, 漢陽書院, 1926.
- 金平默, 『重菴集』(한국문집총간 319~320집)
- 柳基一, 『龍西稿』(연세대학교 소장본)
- 柳基一, 『龍西稿』(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 柳重教, 『省齋集』(한국문집총간 323~324집)
- 李恒老, 『華西集』(한국문집총간 304~305집)
- 春川文化院, 『春州誌』, 春川市·春城君, 1984.
- 洪在龜, 『啓蒙要覽』(고려대학교 소장본)
- 洪在龜, 『息閑眞詮』(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洪在龜, 『息閑眞詮』(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洪在龜, 『衛正新書』(모덕사 소장본)
- 洪在龜, 『正俗新編』(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본)
- 『章山課藁』(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2. 논저

- 강대덕, 『화서 이항로의 시대인식』, 신서원, 2001.
-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박민영, 『화서학과 인물들의 독립운동』, 역사공간, 2019.
-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한국학 자료 해제』,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0.
- 안세현, 「강원지역 천주교의 유입과 유교사회의 대응」, 『고전과 해석』 18, 고전문화한문학연구학회, 2015.

- 여진천, 『《正俗新編》解題』, 『교회사연구』 1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 여진천, 「19세기 화서학과 홍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 -《正俗新編》을 통하여-」, 『교회사연구』 2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 장삼현, 『蕺溪淵源錄』, 양평문화원, 1999.
- 장삼현, 『華西學派의 忠義孝烈錄』, 양평문화원, 2002.
- 정경훈, 「遜志 洪在龜의 『正俗新編』 연구」, 『儒學研究』 2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2.
- 千惠鳳, 『韓國 書誌學』, 민음사, 1997.

## Abstract

### *A study on the writing of Sonji Hong-jaegu*

Shin Yo-han<sup>\*</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nji Hong-jaegu's writings. Hong-jaegu is a member of Hwaseo(華西) School. He is a disciple of Kim pyeongmuk. Hwaseo(華西) School promoted 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衛正斥邪) with stabilizing the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the national defense(內修外攘). He succeeded this idea. His writings have this same idea. This paper examines his work in terms of stabilizing the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the national defense. 『Jeongsoksinyeon(正俗新編)』 and 『Gyemongyolam(啓蒙要覽)』 were classified as stabilizing the government. 『Wijeongsinseo(衛正新書)』 and 『Sikhanjinjeon(息閑眞詮)』 were classified as strengthening the national defense. 『Jeongsoksinyeon』 and 『Gyemongyolam』 are an explanation of the Oryun(五倫), the basic idea of Confucianism. 『Wijeongsinseo』 is a compilation of books related to 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Sikhanjinjeon』 is an article criticizing Catholic doctrine. In the above, I looked at the writing activity of Hong-jaegu. For further study of Hong-jaegu, constant review of his writings is needed.

【Key words】 Hong-jaegu, Jeongsoksinyeon, Gyemongyolam, Wijeongsinseo, Sikhanjinjeon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12월 04일, 게재확정일 : 12월 08일

---

<sup>\*</sup> Doctor`s course completion,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 yohanshin@cnu.ac.kr